

묵은쌀 섞고 “햅쌀이요”... 소비자 속인 ‘농협의 타락’

옥천·황산 농협 등 해남 지역 농협들이 묵은 쌀을 햅쌀에 섞거나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대형 유통업체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대량 유통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농협 측의 비양심적 판매 행위 때문에 애꿎은 농민과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지역 우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수년간 묵은 쌀을 햅쌀로 섞어 햅쌀로 표시한 뒤 대형 마트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양곡관리법 위반 등)로 해남 옥천농협 조합장 양모(67)씨 등 임원 5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애초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년도에 판매하고 남은 묵은 쌀(2900t)을 햅쌀(1만500t)과 2대 8의 비율로 섞은 뒤 햅쌀로 표시해 대형 마트 등 26개 거처에 160여개 판매소에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농협 전산 시스템에서 생산년도를

옥천농협, 수년간 전국에 178억 어치 팔아 24억원 부당이익
황산농협, 일반쌀→친환경쌀 둔갑시켜 남도장터 등에서 판매
경찰, 조합장 등 8명 입건... 전남 우수 농산물 불신 이어질 듯

조작, 묵은쌀로 햅쌀로 바꿔 출하해 감독·수사 기관의 감시를 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양씨 등은 혼합된 쌀을 ‘춘하추동’, ‘이맛쌀’, ‘땅글햇쌀’, ‘라이스’, ‘첫사랑’, ‘우리쌀골드’, ‘구슬샘’ 등의 브랜드명으로 전국에 유통, 판매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전남의 대표쌀인 ‘한눈에 반한 쌀’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양씨 등이 혼합된 쌀 1만

3400t(20kg들이 57만 포대·178억원)을 판매해 24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통계청의 성인 1인당 쌀 소비량(2012년 69.8kg)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성인이 이를 동안, 서울 전체 인구가 1주일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옥천농협은 전국에서 손꼽는 규모인 미곡종합처리장을 갖추고 매년

400억원 이상의 쌀을 파는 곳인데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유통한 혐의(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해남 황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김모(43)씨 등 3명도 입건, 조사중이다.

김씨 등은 일반 쌀을 친환경쌀로 둔갑, 71t(20kg 들이 7만5000포대·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남도장터 등에서 ‘불로초’, ‘땅글햇쌀 친환경’ 등의 브랜드명으로 판매해 2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남도장터는 전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 농수특산물 인터넷 쇼핑몰로, 한국소비자포럼 주최, 2009년 브

랜드조사에서 ‘2009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부 불지각한 비양심적인 업체들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옥천 농협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 재고로 남은 원료 곡을 정상적으로 팔 경우 40kg 들이 1포대당 1만원 정도 손해를 봐야 해 쌀을 섞어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이나 친환경 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악용한 사례”라며 “행정기관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생산년도, 품종 등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농협 전산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지흥기자 dok2000@kwangju.co.kr

1원침 (9010) 김장주



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 기소

지난 1월 포털 사이트를 떠들썩하게 한 의사의 친 여동생 성폭행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해당 의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4일 포털사이트 A씨를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6~2007년 3차례에 걸쳐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동생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용돈 안 준다” 딸 집 불질러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딸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80대 남성이 경찰서행.

○4일 여성경찰에 따르면 이모(83)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40분께 여수시 국동 자신의 딸(53) 소유의 단독주택에 등유를 붓고 불을 붙여 소방서 추산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경찰에서 이씨는 “한 달에 10만원씩 용돈을 주기로 한 딸이 2개월째 용돈이 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여수=김형희기자 chkim@

진도 울돌목 수중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문화재청 직원·잠수사가 유물 빼돌려

다른 불법은닉 가능성도

국보급 고려청자가 발굴된 진도군 오류리 울돌목 해역(광주일보 8월30일 1·3면)에서 수중 문화재 발굴 작업을 하던 문화재청 직원과 잠수사가 발굴 유물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발굴 과정이 외부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빚어진 사건으로, 다른 불법은닉 사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발굴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이 유물 불법은닉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4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해역에서 진행된 ‘제2차 수중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불법 도굴 은닉사건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회수한 청자매병

문화재청 소속 직원 2명과 민간 잠수사 1명이 지난 9월 2일 바다에서 건져 올린 청자 매병 1점 을 은닉한 사실을 자체 점검에서 확인, 지난달 19일 회수했다는 것이다. 문재의 청자매병은 국보급은 아니지만 14세기 말 제작된 것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류리 해역의 수중 가시거리가 10cm 안팎에 불과해 주변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 잠수사와 직원이 공모해 벌

인 범행”이라며 “잠수사의 집에 있던 유물은 회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이 일대 해역에서 고려청자를 도굴해 팔았다 불잡힌 일당을 통해 드러난 진도 오류리 수중 문화재가 발굴 과정에서 다시 도굴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문화재청이 은닉을 막지 못하고 50일이 지난 뒤에야 범행 여부를 파악하는 ‘허술함’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그들만의 발굴 작업’을 펼치면서 불상사가 비뚤어지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른 불법 은닉 사례가 있지 않겠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문화재청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공식적인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초로 계획된 ‘2차 수중 발굴 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민주의 종’ 종각 기와 없기

전통 한식목구조로 복원된다.

4일 오후 ‘민주의 종’ 종각의 기와 없기 한창이다.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 들어 설 종각은 목공직업과 지붕공사, 단청공사 등을 거쳐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의경부대서 구타·가혹행위

경찰, 가해 의경들 조사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의경 부대에서 구타와 가혹 행위가 발생, 가해 의경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의경들이 구타와 가혹 행위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중대는 상급기관에 제 때 보고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

의경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 사실을 제 때 보고받지 못하는 등 실제 파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청 경비교통과장은 “의경 구타 등 가혹행위 여부를 4일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전·의경 사고 발생 시 상급기관인 지방청 등으로 즉시 보고하는 통상적 절차와 사뭇 다른 조치다. 이 때문에 끊이지 않는 전·의경 간 가혹 행위를 놓고 원인 분석과 처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건설폐기물 처리장서 훼손된 시신 일부 발견

나주경찰, 수사 나서

4일 오전 8시에 나주시 A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외국인 노동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시체는 인종·성·발 일부

로 추정되고 있다.

A업체 측은 일주일 전 광주지역에서 들어온 건설폐기물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시체를 발견했지만 마네키인으로 오인해 다른 건설폐기물 등과 함께 쌓아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경찰은 손톱 상태 등을 통해 성인 여성으로 추정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훼손된 시체 부위 등으로 미뤄 건설중장비에 의해 사체가 훼손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201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 학부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 단 위	모집 인원	수시 2차	정 시
인 문	학 과	10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1	
사 회	사회복지상담학과	7	5	
	유 아 교 육 과	7	3	
예 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4	5	
	실 음 음 악 학 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레이스, 재즈소프,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5	
	총 계	31	3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수시 2차모집
· 원서접수: 2013. 11. 11(월) ~ 15(금)
· 전 형 일: 2013. 11. 21(목)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월)
· 전 형 일: 2014. 1. 3(금)

■특별전형

-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 신학대학원 신입생 특별전형 】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선발하는 학과와 학부과정이 동일계열 출신이지만 해당됨.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2013. 11. 11(월) - 22(금)
② 전 형 일: 2013. 11. 26(화) 오후 4:00

【 각 대학원 신입생 일반전형 】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2013. 12. 2(월) - 10(화)
② 전 형 일

학 과	필기 및 실기고사	면 접 고 사
신학과(Ph.D.)	2013. 12. 13(금) 오전10:00	필기고사 후
목회학과(D.Min.)	-	2013. 12. 13(금) 오전10:00
신학과(Th.M.)	2013. 12. 13(금) 오전10:00	필기고사 후
신학연구학과(M.A.T.)	-	2013. 12. 13(금) 오전10:00
유아교육학과(M.Ed.)	-	2013. 12. 14(토) 오후3:00
음악학과(M.A.)	2013. 12. 14(토) 오후3:00	실기고사 후
신학과(M.Div.)	2013. 12. 13(금) 오전10:00	필기고사 후
교육학과(M.Ed.)	-	2013. 12. 14(토) 오후3:00
상담심리치료학과(M.A.)	-	2013. 12. 14(토) 오후3:00
사회복지학과(M.S.W.)	-	2013. 12. 14(토) 오후3:00
평생교육학과(M.Ed.)	-	2013. 12. 14(토) 오후3:00
한국어교원학과(M.A.)	-	2013. 12. 14(토) 오후3:00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